

국내소식

동자부, 매월 첫째주 금요일 「에너지절약의 날」로

매월 첫째주 금요일이 「에너지절약의 날」로 정해졌다.

동자부는 국내의 에너지소비를 억제키 위해 최근 이같이 결정하고 이날을 기해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동자부는 에너지절약의 날에 산업, 수송, 가정, 건물부문별 에너지절약 일제 점검을 적극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한전, 에너지관리 사례발표회 개최

한전은 최근 전력수급안정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일환으로 「제14회 에너지관리 사례발표회」를 개최했다.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고 절약을 생활화하기 위한 이번 발표회에는 예심을 거쳐 올라온 8개 사업소로부터 우수에너지관리 사례발표가 있었다.

총44개 참가사례중 1등으로 선정된 곳은 여수화력 발전소로 「2호기 복수기 튜브 배열 개선으로 복수기 진공도 향상」의 사례를 발표했다.

이는 건설당시부터 문제점이던 복수기 진공도 저하요인을 해결, 하기공급능력의 증대와 열효율향상이 전망됐다.

이밖에 2등은 호남화력발전소, 3등은 고리원자력 제1발전소와 보령화력본부가 각각 차지했다.

네온·전자식 전광판 사용시간 단축

동자부는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소비절약과 국민의 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네온·전자식 전광판 전기사용시간을 현행 24:00까지에서 23:00까지로 1시간 단축 시행키로 했다.

이에 네온·전자식 전광판 전기사용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에너지절약기기 전시·판매회 개최

에너지관리공단은 동자부 후원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과천정부 제2청사 후생관 로비에서 장미전구, 삼파장램프(신광기업), 오스람램프(승산오스람) 등 에너지절약기기 전시 판매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출품된 제품은 전구류뿐만 아니라 전자식 안정기(동명전기, 보암산업), 양변기 2단 절수장치(대림통상), 자동조명 전력절전기(송광기전), 안정기 부착형광등 셋트(극동기업) 등 절전제품 및 절수제품 등이 다량 출품됐다.

이들 품목들은 그 효율이나 절약효과가 우수한 설비들이며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홍보가 미흡, 널리 보급되지 못한 제품들이다.

이번 전시 판매회의 목적은 우수한 절전·절수제품에 대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할인구입 및 설치를 유도함으로써 직접적 에너지절약 효과를 도모하는 데 있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측은 각종 에너지절약 지체·기법 팜플렛을 배포하고 절전형 조명기기의 시험비교전시, 주택단열효과의 비교모형 등을 별도로 전시했다.

서일중전기(주), 석탑산업훈장 수상

중전기기업체인 서일중전기(대표:이종식)가 지난 4월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정부로부터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

국내의 중전기분야의 국산화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서일중전기가 개발한 품목은 ACB(저압기중차단기)와 LBS(부하개폐기), ATS(절제스위치) 등 전력계통의 핵심이 되는 첨단제품이 있으며, 또한 14억원의 개발비를 투자하여 수입대체 효과가 약 500억원에 달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상공부 및 동자부장관 표창에 이어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하게 되었다.

해외소식

대만, 전력공급 차질 우려

대만은 올 하절기 전력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발전소 등의 추가 건설계획이 지연,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대만은 지난해 전력공급 예비율이 11.8%로 하락하는 등 전력부족사태를 겪고 있어, 지난 '90년부터 제한송전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하계 피크부하제어를 위한 강력한 제어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건설이 지연돼 공급예비율이 하락,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용 및 산업용 고압수용가를 대상으로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89년부터는 이가제량(以價制量) 정책을 채택, 전 수용가를 대상으로 하절기의 요금인상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주택용 전력 차등요금제도 실시

일본 전력회사들은 오는 6월 1일부터 모든 주택용 전력에 대해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주간에는 비싸게 적용하는 반면 야간요금은 싸게 하는 것으로 일본의 전력사(社)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심야축열기 소유자에게 한해 가정용 시간대별 요금제도를 2만 2천 8백 73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미국 연간 전력소비량 으뜸, 2조6천5백억kWh

세계 최대의 전력소비국은 미국으로 연간 총전력 소비량이 2조6천5백억kWh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전기사업통계에 따르면 선진 각국이 경제수준이 향상되면서 어느 나라 할 것없이 전력소비가 급

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국민1인당 전기사용량은 약11만 kWh 이상 소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총전력소비량이 6천7백23억 kWh으로 국민1인당 전기사용량은 약 5천5백kWh로 미국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전력소비내용은 산업용이 58.3%로 전체 전력소비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용은 24.2%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용 전력소비가 전체 전력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이탈리아이며 미국과 영국은 가정·산업용 수요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영국과 스웨덴의 국민1인당 전기사용량은 1만5천kWh 이상으로 이들 국가는 온수기, 조리기기 등 열이용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많아 가정·산업용 수요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소형 인버터 개발 치열

일본의 범용 인버터(주파수 제어장치)제조업체는 최근 소형 다기능 범용 인버터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자, 이에 적합한 소형제품 개발경쟁을 벌이고 있다.

FA관련업체에 따르면 현재 일본 범용 인버터 시장의 생산규모는 연간 80만대, 6백억엔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미쓰비시전기와 후지전기가 1위를 다투고 있으며 히타치·도시바·야스가와전기·마쓰시다 등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미쓰비시전기와 후지전기 양사의 소형 디지털제품이 소비자로부터 호응받으면서 각 메이커들의 소형 다기능 제품개발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또 후지는 32비트 DSP(디지털 신호처리기)를 탑재한 체크기의 인버터「FVR-B7S시리즈」등을 개발, 상품화 시켰다.